

**‘아프레 걸’ 서사로서의 1950년대 중후반 최정희 장편소설 연구**  
**- 『끝없는 낭만』, 『너와 나와와 청춘』, 『그와 그들의 연인』을 중심으로 -**

변하연(서울대학교)

**<목차>**

1. 들어가며
2. ‘아프레 걸’ 되지 않기에 실패하는 여성들 - 『끝없는 낭만』, 『너와 나와와 청춘』
3. 전도된 ‘아프레 걸’ 서사 - 『그와 그들의 연인』
4. 나오며

**1. 들어가며**

전후 한국 사회는 젠더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 위에 놓여 있었다. 남성들이 대규모로 전쟁에 동원됨에 따라 남겨진 여성들은 그들을 대신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생활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고, 전장에 끌려갔던 남성들이 설사 살아 돌아오더라도 많은 경우 전쟁 후유증을 호소하였기에 식구들을 부양하는 것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었다. 이처럼 한국전쟁은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확대”<sup>1)</sup>시키면서 “전통질서와 가부장의 권력에 도전하는 여성”<sup>2)</sup>의 등장을 불러왔다. 이는 물론 남성성의 위기와 양면을 이루는 것이었으므로, 남성 주체는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가 재건이라는 명분 아래 ‘전후 레짐(postwar regime)’<sup>3)</sup>을 내세워 남성성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했다. 바로 이 전후 레짐 하에서 가부장적 질서를 위협할 위험이 있다고 간주되는 여성들은 이른바 ‘아프레 걸(après girl)’이라고 명명되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아프레 걸이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불어 닥친 새로운 움직임”<sup>4)</sup>을 일컫는 프랑스어 ‘아프레게르(après guerre)’에서 파생된 말로, 해당 용어가 여성화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들의 성적 방종’이라는 의미로의 편향과 함께 이루어졌다.<sup>5)</sup> 그에 따라 아프레 걸 담론은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최미진이 밝힌바 1950년대 신문연재소설들은 그러한 아프레 걸 담론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대체로 전통적 여성상의 승리로 귀결되었다.<sup>6)</sup>

1)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86면.

2) 위의 책, 18면.

3) 이는 오테영, 「전후 남성성 회복과 여성 욕망의 금기 —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5(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에서 따온 개념이다. 오테영은 ‘전후 레짐’을 ‘해방에서 단정 수립, 그리고 한국전쟁 발발과 전후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인 냉전 질서와 남북한 분단 체제가 구축되어 가는 가운데 반공국가로서 자신의 위상을 재정립해간 남한사회의 실정성을 재생산하기 위한 일련의 통치적 배열로서, 개인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그 효과를 통제하는 규범’이라고 정의한다.(해당 글, 각주 5번.)

4) 최미진, 「1950년대 신문소설에 나타난 아프레 걸」, 『대중서사연구』 18, 대중서사학회, 2007, 122면.

5) 권보드래, 「실존, 자유부인, 프래그머티즘 — 1950년대의 두 가지 ‘자유’ 개념과 문화」, 『한국문학연구』 35,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8, 119면.

6) 최미진, 앞의 글, 147-148면 참조.

1950년대 중후반에 발표된 최정희의 장편소설들 역시 이와 같은 자장 아래서 창작되었다. 이 무렵 최정희는 장편소설을 거의 쉬지 않고 연재했는데, 1956년 9월부터 1959년 3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총 4편의 소설을 동시적으로 혹은 연쇄적으로 연재한 수준이었다.<sup>7)</sup> 이병순은 이들 소설의 인물 유형과 구성 및 서사적 차원에서 확인되는 유사성에 근거하여 이 시기 최정희의 작품군을 ‘복제품’에 빗대는 한편, 최정희의 1950년대 신문/잡지연재소설을 포괄하여 “당대 사회의 지배담론을 독자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대중소설의 의장을 갖춘 일종의 계몽소설”이라고 요약한다.<sup>8)</sup> 하지만 작품 면면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최정희의 1950년대 중후반 장편소설들은 단순한 자기복제나 반복의 결과물이 아니거니와, 지배담론에 부합하는 계몽소설로 규정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아프레 걸 담론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창작된 최정희의 1950년대 중후반 장편소설들이 어떻게 아프레 걸 담론을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주요하게 살펴볼 작품은 『끝없는 낭만』(1958), 「너와 나의 청춘」(『주부생활』, 1957.09.-1959.03.), 「그와 그들의 연인」(『국제신보』, 1956.09.01.-1957.02.08.)이다. 『끝없는 낭만』은 본래 1956년 1월부터 1957년 3월까지 대중잡지 『희망』에서 「광활한 천지」라는 제목으로 연재되다가 이후 1958년 동학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과정에서 『끝없는 낭만』으로 제목이 바뀌었는데, 최근 나보령의 연구에서 단행본 『끝없는 낭만』의 판본이 1958년 11월 10일 인쇄본과 11월 19일 인쇄본으로 두 가지였음이 밝혀졌다.<sup>9)</sup> 한편 「너와 나의 청춘」은 별도의 단행본 출간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와 그들의 연인」의 경우에는 2014년에 이병순에 의해 처음 소개된 뒤<sup>10)</sup> 2018년 「테스마스크의 비극」과 함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sup>11)</sup>

이들 작품에는 아프레적 속성을 지닌, 정확히 말하면 아프레적 속성을 지녔다고 ‘간주될 법한’ 여성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세 작품의 여성 주인공들은 아프레 걸이라고 낙인찍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프레 걸을 향한 전 사회적 비난은 여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구별 짓기의 기제를 수용하도록 만들었다. 더군다나 아프레 걸이라는 용어는 그 개념적 불명확성에서 말미암아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해 가는 양상을 보였고,<sup>12)</sup>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이 아프레 걸이 아님을 계속해서 증명해야만 했다.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과 「너와 나의 청춘」은 이와 같은 압박감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전면에 내세운 소설들이다. 이때 『끝없는 낭만』은 ‘미군과 친밀한 관계(intimate relationship)에 있

7) 이병순, 「1950년대 여성담론의 소설적 구현 — 최정희의 「너와 나의 청춘」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59(1),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0, 88면.

8) 위의 글, 91면.

9) 나보령, 「나비부인의 편지 — 냉전 오리엔탈리즘과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 『사이언SAI』, 39, 2025. 이 글에서는 11월 19일 인쇄본을 참조했다. 『끝없는 낭만』의 판본별 결말의 구체적인 개작 양상과 그 의미에 관해서는 나보령, 해당 글 참조.

10) 이병순, 「1950년대 중반 최정희의 장편소설 연구 — 〈테스마스크의 비극〉과 〈그와 그들의 연인〉을 중심으로 —」, 『한국사상과 문화』 73, 한국사상문화학회, 2014. 「그와 그들의 연인」의 상세 서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글, 89-90면 참조.

11) 최정희, 이병순 편, 『테스마스크의 비극, 그와 그들의 연인: 1950년대 최정희 신문연재소설』, 푸른사상, 2018. 참고로 책 표지에는 “한국 근현대문학의 대표적 여성소설가 최정희의 알려지지 않은 두 작품의 복원”이라고 쓰여 있다.

12) 김은하는 당대 여성잡지들에서 아프레 걸이 담론화되어 갔던 과정을 분석하면서 “아프레 걸의 정체가 뚜렷하지 않은 채 담론은 과잉화되어 바람난 “전쟁 미망인”, 자유부인(유한 마담), 유엔 레이디, 계 마담, 알바이트 여성, 독신 여성, 고학력 직장 여성 등을 지칭하는 말로 외연을 확장해 가기도 했다”고 쓴다. (김은하, 「전후 국가 근대화과 “아프레 걸(전후 여성)” 표상의 의미」, 『여성문학연구』 16,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191-192면.) 최미진 또한 “아프레 걸이 특정 여성뿐 아니라 전통적 여성젠더에서 벗어난 모든 여성으로 외연을 확장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논한다.(최미진, 앞의 글, 123면.)

는 여성'13) 인물을, 「너와 나의 청춘」은 「직업여성」 인물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우선 짚어둘 필요가 있겠다. 최미진은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나타난 아프레 걸 표상을 살핀 연구에서 아프레 걸을 양공주(‘양갈보’), 다방 마담, 직업여성, 여대생으로 범주화하면서 양공주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처음으로 부각된 아프레 걸이었으며, 직업여성은 아프레 걸과 유사한 의미망을 지닌 ‘현대 여성’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제시되곤 했음을 밝힌 바 있다.14) 따라서 본고의 2장에서는 해당 논의에 기대어 『끝없는 낭만』의 주인공 차례와 「너와 나의 청춘」의 주인공 주애가 각각 미군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과 직업여성으로서 아프레 걸로 규정되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과정과 더불어, 그것이 어떻게 결국 실패로 귀결되고 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끝없는 낭만』과 「너와 나의 청춘」이 ‘아프레 걸’이라는 개념의 무규정적 성격을 드러내어 아프레 걸 담론의 한계를 폭로하는 소설들이라면, 「그와 그들의 연인」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아프레 걸 담론을 재전유하는 작품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인공 윤상매의 아프레적 속성을 전후(戰後)가 아닌 전전(戰前)에 배치시키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점을 우선 짚어두고자 한다. 그리하여 소설은 아프레 걸 표상과 분명한 유사성을 지닌 인물인 주인공 윤상매가 전쟁을 거치면서 오히려 전통적 여성상에 더 가까워져 가는 과정을 그려냄으로써 전후(戰後)의 의미를 탈바꿈시킨다. 본고가 「그와 그들의 연인」을 전도된 아프레 걸 서사라 지칭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데 윤상매의 ‘성숙’을 이끈 장본인인 남성 인물이 급작스럽게 전사하고 만다는 작중 설정은 「그와 그들의 연인」을 단순히 순서상으로 전도된 아프레 걸 서사라고만 볼 수는 없게 만든다. 3장에서는 특히 그러한 설정의 의미에 천착하여 「그와 그들의 연인」이 아프레 걸 담론의 재전유를 서사적으로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논할 것이다.

## 2. ‘아프레 걸’이 되지 않기에 실패하는 여성들 - 『끝없는 낭만』, 「너와 나의 청춘」

『끝없는 낭만』은 최정희의 1950년대 중후반 장편 소설 중에서 드물게 상당한 연구가 집적되어 온 편이다.15) 이들 연구는 대체적으로 ‘여학생-양공주’라는 차례의 이중적 정체성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해간다. 그 가운데 본고가 특히 주요하게 참조한 연구는 박홍매의 것이다. 박홍매는 『끝없는 낭만』을 차례가 ‘여학생-양공주’ 사이를 계속해서 오가며 내적 갈등을 겪는 서사로 독해

13) 이는 배상미, 「미군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들이 폭로하는 한국사회의 모순과 민족적 가부장제의 폭력 - 강신재의 『해방촌 가는 길』,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 『상허학보』 65, 상허학회, 2022에서 따온 표현이다. 배상미는 ‘양공주’라는 단어의 부적절함을 인식하면서도 차례를 ‘양공주’로 명명하는 선행연구의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당 개념을 제안한다. 그러나 배상미 역시도 부기하고 있듯, 이들은 ‘양공주’라 불리는 직업적 성노동자들과 유사한 낙인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복순은 차례를 ‘의사pseudo 양공주’라 표현하기도 한다.(김복순, 「아프레 걸의 계보와 반공주의 서사의 자기구성 방식 -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을 중심으로 -」, 『어문연구』 37(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291면.)

14) 최미진, 앞의 글 참조. 다만 해당 연구는 대표적인 아프레 걸로 손꼽히는 ‘자유부인’ 혹은 ‘유한마담’의 경우 정비석의 『자유부인』 관련 연구들을 통해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음을 덧붙여 둔다. 이를 포함한다면 아프레 걸 표상은 크게 자유부인(유한마담), 양공주, 다방 마담, 직업여성, 여대생 다섯 유형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5) 그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윤경, 「1950년대 미국문화의 유입과 여성의 근대경험: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34, 한국비평문학회, 2009; 김복순, 앞의 글; 허윤, 「1950년대 양공주 표상의 변천과 국민 되기 -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41(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3; 이선미, 「1950-60년대 소설의 「미국」 재현양상과 담론화 과정 연구 -미국수용과 한국자유주의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배달말』 61, 배달말학회, 2017; 오태영, 앞의 글; 조미숙, 「1950년대 말 여성 작가의 서사전략 - 장편소설 『끝없는 낭만』, 『빛의 계단』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63,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9; 배상미, 앞의 글; 조미숙, 「〈끝없는 낭만〉, 〈태양의 계곡〉에 나타난 전후 여성 문제와 ‘주체화’ 양상」, 『동남어문논집』 53, 동남어문학회, 2022; 박홍매, 「양공주 서사에 나타난 잔인한 낭만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 작품론」, 『여성문학연구』 63, 한국여성문학학회, 2024; 나보령, 앞의 글.

하면서 “나는 양공주가 아니다”라는 명제는 시작부터 ‘양공주 혐오 프레임’에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양공주와 다르다’라는 낙관이나 환상은 실패하기 마련”<sup>16)</sup>이라는 분석을 제출한다. 본고 또한 기본적으로 이와 유사한 시각에서 『끝없는 낭만』을 읽고자 한다. 다만 소설 내에서 양공주 프레임이 작동하는 과정을 아프레 걸 담론의 작동 방식과 연관시켜 논할 것이다.

실로 『끝없는 낭만』은 캐리 죠오지에게 이끌리면서도 ‘양부인’과 동일시될 것을 두려워하는 차래의 심리를 묘사하는 데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이는 두 사람의 첫 만남을 그린 장면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난다. 차래는 1·4후퇴 당시 부모님을 두고 혼자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1년여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데, 그 사이 차래의 어머니는 “미군의 빨래와 다림이질”<sup>17)</sup>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차래는 바로 그 미군의 옷가지를 요배네로 전해주러 갔다가 그 앞에서 캐리 죠오지를 만나게 된다. 이때 둘의 만남은 차래의 치맛자락이 캐리 죠오지의 찢차에 걸려 찢어진 사건을 매개로 한다. 캐리 죠오지는 차래의 “찢어진 치마자락을 [직접] 만져”(30면) 주며 사과를 건넨다. 그것은 물론 선의에서 비롯된 행위지만, 충분히 섹슈얼한 뉘앙스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차래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캐리 죠오지의 시선을 “불이 활활 타는듯한 눈”(30면)으로 묘사하는 부분은 이러한 해석에 설득력을 더해준다.<sup>18)</sup> 차래는 그 공격적인 시선에 위협감을 느끼면서 “도망”(30면)치듯 자리를 피한다. 그러나 캐리 죠오지와 거리를 두고자 하는 차래의 계획은 번번이 실패하고 만다. 캐리 죠오지가 집까지 태워다준다는 제안이 영 내키지 않았지만 요배 처의 사촌오빠의 종용에 못 이겨 결국 캐리 죠오지의 찢차를 얻어 타게 되고, 집 근처에 도착해서는 대문까지 “줄달음질”(33면) 쳐보지만 캐리 죠오지는 집까지 따라 들어온다. 캐리 죠오지가 어머니와 인사를 나누는 동안 차래는 신경질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면서 그에게 집에서 빨리 나가줄 것을 거듭 재촉한다. 차래가 이토록 예민하게 구는 이유는 아래의 대목에서 비로소 밝혀진다.

나는 「캐리 · 죠오지」가 빨리 가 주기를 진실로 바랐던 것이예요. 우리 이웃에는 양부인 노릇 하는 여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이런 외군들이 들락날락했던 것입니다. 양부인들이 많이 살게된 원인은 미×군단이 바로 가까운데 주둔한데 있습니다. (36면)

즉, 차래는 자신이 ‘양부인’으로 오인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러한 차래의 불안은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점차 발전해 가는 상황에서도 지속된다. 차래는 캐리 죠오지로부터 꽃과 화분을 선물 받은 뒤 그를 향한 경계심을 얼마간 거둔다. 어머니가 캐리 죠오지를 칭찬하는 말에 반발하는 대신 사실 자신 역시 캐리 죠오지의 인상을 좋은 편이라 생각한다고 솔직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캐리 죠오지의 시선을 “몹시 푸른 눈에 빛나는 정기”(44면)에 빚대어 표현한다. 캐리 죠오지를 처음 만나던 날, 그의 ‘불이 활활 타는듯한 눈’에 위협감을 느끼며 “아무 소리도 못하고 멍하니”(31면) 서 있던 차래는 이제 “그의 시선을 받으면서 태연히”(45면)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그다지 오래 가지 못한다. “생활에 큰 변혁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47면)이 다시금 엄습해 왔기 때문이다. 차래는 이를 해소하고자 친구 상매에게 편지를 보낸다. 고위 관료의 딸로서 엘리트 여학생의 표본처럼 그려지는 상매는 “한국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를 상징”<sup>19)</sup>하는 한

16) 박홍매, 앞의 글, 265면.

17) 최정희, 『끝없는 낭만』, 동학사, 1958, 28면. 이하 해당 소설을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면수만 표기하도록 한다.

18) 허윤은 “불이 활활 타는듯한 눈”이라는 차래의 묘사는 캐리 죠오지의 시선을 “여성을 위협하며 내려다보는 공격적 시선으로 상징하는 것”으로서, “미군에게 위협당하는 식민자의 시선”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한다.(허윤, 앞의 글, 264면.)

19) 배상미, 앞의 글, 113면.

편, 소설 내에서 차래의 ‘초자아’<sup>20)</sup>로서 기능한다. 차래는 상매의 근황을 묻고자 한 본래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는 ‘양부인’ 이야기를 자신도 모르는 새 편지에 써 적고, 차래의 편지를 받아본 상매는 편지를 읽고서 “말할 수 없는 불안”(49면)이 일어났다면서 온통 양부인 관련 내용 일색인 답신을 보내온다.

소위 양부인이라는 건 해방의 부산물이라고 하고 나서 우리 사회가 아직 정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업여성 통계란에 ‘파-센트’를 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 했습니다. 그리고 상매는 어른 처럼 동방예의지국을 자랑하던 우리 나라 여성들이 왜 이다지도 맥을 못추리고 흘러가는지 모르겠다고 한탄 했습니다.

(…)

상매는 편지 맨 끝에 가서 다시 양부인 문제를 들추고 양인이 되는 여성들의 대부분이 허영심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성들이 허영심 때문에 자기를 파멸시키고 국가와 민족을 좀 먹는 일이 많으니 더 분발하여 우리들이 어려운 이현실을 뚫고 나가는 여성이 되자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50면)

차래는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읽고 상매처럼 굳은 의지를 갖추겠다고 결심하는 한편 캐리 죠오지가 다시 찾아오는 즉시 그를 쫓아내 버리겠다고 마음먹는다. 그리고 그것은 “미군이 자꾸 음 인자네랑 저희들하구 같은 양갈본줄 알잖아요”(51면)라는, 몹시 노골적인 발화로 구체화된다.<sup>21)</sup> 차래가 상매를 의식하며 캐리 죠오지에게로 기우는 자신의 마음을 거두는 식의 구도는 소설 내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가령, 차래는 “「캐리 · 죠오지」하고 결혼하는건 양갈보가 아니라고 상매가 댓구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96면)으로 구태여 상매 앞에서 ‘양갈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상매는 아무런 대꾸를 해주지 않을뿐더러, “외국 사람하고 연애편계 맺지 말아야 해”(98면)라고 단언한다. 이에 차래는 우울감에 빠져 지내다가 캐리 죠오지에게 절연을 요구하는 편지를 쓰기에 이른다. 해당 편지에서 차래가 캐리 죠오지의 무릎에 머리를 파묻었던 일은 “양갈보나 하는 짓”(122면)과 동질적인 것으로 표현된다.

이후 차래는 전사한 줄만 알았던 약혼자 배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배곤과 캐리 죠오지 사이에서 자기분열을 겪는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차래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캐리 죠오지임을 깨닫는 계기로 작용한다.<sup>22)</sup> 마침내 차래는 병문안을 온 캐리 죠오지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두 사람은 어엿한 연인 사이가 된다. 하지만 차래가 일전에 우려했던 대로 사회는 차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이러한 시선은 상매의 이종사촌 현영훈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다. 캐리 죠오지를 소개받는 자리에서 그와 차래의 사이를 눈치챈 현영훈은 대놓고 탐탁지 않아 하는 티를 내면서 차래를 아예 ‘양갈보’에 빗댄다.<sup>23)</sup> 차래가 캐리 죠오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기도 전에, 따지자면 그와 처음 대면했던 순간부터 줄곧 두려워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만 셈이다. 이처럼 캐리 죠오지와 연인 관계를 맺게 된 이상 차래는 자신은 양공주가 아님을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위치에 놓인다. 이는 차래가 캐리 죠오지와 결혼

20) 허윤, 앞의 글, 270면.

21) 차래는 ‘양갈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나는 일부러 양갈보란 말을 썼어요. 양부인이란 말보다 ‘양갈보’란 말이 따게 오기 때문이었어요.”(51면)라고 서술한다.

22) “꿈을 꾸고 나면 열이 올랐어요. 열이 뜬 속에서도 나는 꿈에 본 곤의 생각을 하며 「캐리 · 죠오지」를 잊어 버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러면 그럴수록 곤은 한층 더 무서워만지고 「캐리 · 죠오지」가 그리워지는 것이었어요. 「캐리」를 꼭 한번만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해 갈뿐이 었습니다.”(156-157면)

23) 이때 현영훈이 차래에게 배곤의 소식을 전해준 장본인이라는 점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을 결심하게 된 데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두 사람의 결혼은 나름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듯 보인다. 캐리 죠오지의 부모님은 둘의 결혼을 흔쾌히 승낙하고,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온다. 그 사이에 차래의 앞으로 배곤의 편지가 도착하긴 하나, 그것은 둘의 결혼이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지는 못한다.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무사히 결혼식을 마친 차래와 캐리 죠오지는 신혼여행을 떠난다. 이때 차래는 “우리들은 당당히 결혼한 부부가 아니냐?”(249면)고 생각하면서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미군과 양부인 사이”(249면)로 볼까 두려워한다. 즉, 차래는 캐리 죠오지와 “성·사랑·결혼의 통합으로 정의되는 낭만적 사랑”<sup>24)</sup>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양공주 프레임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그것은 캐리 죠오지가 근무 연기 신청을 퇴각당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더욱 강화된다. 차래는 캐리 죠오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한국에 남아 아이를 낳는다. 그런 차래의 앞에 나타난 배곤은 자신은 양갈보가 아니며 캐리 죠오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차래에게 “차래씨는 양갈보가 아니라고 자신을 변명합니다만 양갈보들에게 이야길 시켜보더라도 역시 차래씨와 똑같은 말을 할겁니다”(288면)라고 일갈한다. 이처럼 양공주 프레임은 차래를 단단히 결박하고 있다. 차래가 아무리 그와 같은 낙인과 편견에 맞서 항변해 보아도 그로부터 벗어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차래는 스스로를 “틀림없는 양갈보”(297면)라 규정하기에 이른다. 그러자 캐리 죠오지와 사랑의 결실로서 “이상형의 아이”(279면)로만 보였던 아들 토니는 갑자기 ‘무섭고 징그러운 것’으로 변모한다. 이에 차래는 토니를 맡기러 영아원에 갔다가 그곳에서 양공주 정순자를 만나게 된다. 소설은 두 사람의 동반 자살을 그리면서 끝난다.

이상으로 살펴보건대, 『끝없는 낭만』은 미군 장교와 사랑에 빠진 여학생 차래가 ‘양갈보’로 낙인찍히지 않으려고 갖은 애를 써 보지만 끝내 양공주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 채 그에 포획되는 서사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여학생’이라는 정체성과 관련하여 김윤경과 최미진의 논의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을 느낀다. 김윤경은 식민지 시기와 해방 이후의 여학생의 지위를 비교·분석하면서 미군정에 의한 여성교육의 확대 정책으로 “근대적 교육을 받은 여성 집단 내에서 위계적 변화”<sup>25)</sup>가 일어났음을 짚어낸 바 있다. 나아가 최미진은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여대생은 “미덕과 악덕을 오가는 이중적 여성”<sup>26)</sup>으로서 아프레 걸과 비非아프레 걸을 구별 짓는 대표적인 표상으로 제시되었음을 밝혀냈다. 『끝없는 낭만』 속 두 여대생 인물, 즉 차래와 상매는 바로 이 구별 짓기의 기제를 보여주는 대립쌍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스로를 ‘양갈보’라 규정지은 뒤 토니를 징그럽게 느끼게 된 차래가 집 밖으로 나와 방황하는 동안 상매는 웅변대회에서 ‘양갈보’ 문제에 대해 연설하고 있었으며, 웅변대회가 열리는 곳까지 갔다가 상매의 연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도로 나온 차래는 “‘딸라가 탐나서?’ ‘호화로운 생활이 좋아서?’하고 악을 쓰는”(305면) 배곤과 상매의 목소리를 환청으로 듣고서 토니를 맡기러 영아원으로 향한다는 작중 설정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면이 있다.

『끝없는 낭만』이 미군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학생 차래가 아프레 걸 담론의 강력한 구별 짓기 기제에 의해서 결국 양공주라는 이름의 아프레 걸로 규정되고 마는 과정을 그린다면, 「너와 나와의 청춘」은 직업여성 주애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이와 유사한 서사를 전달한다. 최정희는 「너와 나와의 청춘」을 여성잡지 『주부생활』에서 연재하던 중에 해당 잡지의 주간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7)</sup> 관련하여 허윤은 최정희와 『주부생활』의 관계에 대해 논한 글에서 최정희는 “주

24) 김복순, 앞의 글, 292면.

25) 김윤경, 앞의 글, 54면.

26) 최미진, 앞의 글, 148면.

27) 그 기간에 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다소 의견이 갈렸으나, 유승환의 최근 연구는 『주부생활』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바탕으로 최정희가 주간으로서 잡지 편집에 관여했던 시기를 1957년 12월부터 1958년 12

간으로서 각종 좌담회에 참여하여 모성과 가정을 강조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아내들이 교양을 쌓고 노력해야 한다는 언설을 반복”<sup>28)</sup>했다고 주장하면서 「너와 나의 청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아내, 어머니의 자리로 귀환”<sup>29)</sup>하는 결말로 맺어진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병순 또한 『주부생활』에서 확인되는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에서 말미암아 「너와 나의 청춘」을 주애라는 여성 인물을 통해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를 소설적으로 구현한 작품으로 요약한다.<sup>30)</sup>

실제로 당시 『주부생활』은 『여성계』, 『여원』 등의 여성지들과 더불어 “여성·여성성에 대한 재정의를 통해 해방과 전쟁으로 인해 문란해진 사회적 질서를 바로잡”고 “성역할 규범을 재강화”하는 역할을 했다.<sup>31)</sup> 그 기저에는 물론 타락한 여성들, 즉 아프레 걸을 향한 비판적 담론이 깔려 있었다. 1950년대 여성지는 이를 통해 ‘아프레 걸’이라고 명명되는 현대적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여성의 순결을 전통적 가치로 재규정”<sup>32)</sup>함으로써 가부장적 근대화 프로젝트를 정초했다. 그런데, 유승환의 말마따나 『주부생활』이라는 지면의 보수적 성격에 근거하여 「너와 나의 청춘」을 단지 최정희의 보수적 여성관이 드러난 작품으로만 독해하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감이 있다. 유승환은 “겉으로는 지배적 여성담론에 그대로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 이를 내파(內波)하거나 전복하려는 최정희 소설 특유의 전략”<sup>33)</sup>이 「너와 나의 청춘」에서도 엿보인다고 주장한다. 본고 또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너와 나의 청춘」을 살피고자 한다. 다만 유승환이 주애가 끝내 전통적 여성상으로 안착하지 못하는 이유를 남성 인물의 속물화와 그로 인한 민족주의적 남성 주체의 해체에서 찾았다면, 이 글에서는 아프레 걸 담론의 작동 방식과 연관 지어 논할 것이다.

「너와 나의 청춘」은 주애가 건국문화사 출판부에 첫 출근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주애는 왕년에는 독립투사였으나 지금은 단지 무직자일 뿐인 남편 이정기를 대신하여 “직업전선에 나서게”<sup>34)</sup> 되었다. 당대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전형적인 ‘직업여성’인 셈이다. 기실 ‘직업여성’이라는 용어는 식민지 시기에 처음 등장하여 1930년대 이르러 널리 통용되었지만, 특정한 일부 여성들을 지칭하는 말에서 그 범위가 보다 확장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을 거친 후부터다.<sup>35)</sup> 한국전쟁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져오는 한편 여성들의 인식 변화를 불러왔고, 그에 따라 1950년대 여성들은 “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생활을 하는 것을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sup>36)</sup>고 있었다. 하지만 여성들에게 있어 경제 활동의 증가가 곧 지위 향상으로 직결되는 것은

월까지로, 권호로 따지면 2권 1호(1958년 1월호)부터 3권 1호(1959년 1월호)까지로 추정한 바 있다.(유승환, 「속물화되는 사회와 젠더의 재구성 - 최정희의 「인생찬가」와 「너와 나의 청춘」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101, 한국문학회, 2025.)

28) 허윤, 「『비국민』에서 『국민』으로 거듭나기: 1950년대 최정희와 잡지 『주부생활』, 『근대서지』 7, 근대서지학회, 2013, 580-581면.

29) 위의 글, 583면.

30) 이병순(2020), 앞의 글, 85면.

31) 김은하, 앞의 글, 188면.

32) 김은하, 앞의 글, 192면. 한편, 1950년대 전통론의 성격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 젠더화 양태를 밝힌 연구로는 김은경, 「한국전쟁 후 재건윤리로서의 ‘전통론’과 여성」, 『아시아여성연구』 45(2),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06.

33) 유승환, 앞의 글, 346면.

34) 최정희, 「너와 나의 청춘」(1회), 『주부생활』, 1957.09., 54면. 이하 해당 소설을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연재 회차와 면수만 표기하도록 한다.

35) 나보령, 「1950년대 ‘직업여성’ 담론을 통해 본 여성들의 일과 결혼 — 정비석의 『여성전선』, 『세기의 중』을 중심으로 —」, 『한국문학과 예술』 23, 사단법인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7, 323-324면.

36) 이상화, 「『여원』에 나타난 신흥 중간계급 직업여성 담론 연구」, 『여성문학연구』 19,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376면. 이상화는 이것이 좌담회, 「직업여성들이 비판하는 남성사회」, 『여원』, 1955.12, 142면을 참조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아니었다. 여성들은 불평등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sup>37)</sup> 직업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향한 통제 담론은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한 논의들에서 직업여성은 흔히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남성들의 유혹에 취약한 존재로 형상화”<sup>38)</sup>되곤 했다.

「너와 나와와 청춘」의 주애는 그러한 사회적 시선을 내면화하고 있는 인물이다. 성적으로 분방한 여성으로 낙인찍힐지도 모른다는 주애의 불안은 소설 내에서 경련 증상으로 나타난다.<sup>39)</sup> 이는 소설의 가장 첫 장면, 주애가 배영과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는 장면에서부터 발현된다. 이후 주애는 배영의 ‘탄력 있는 구두발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와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쓴다. 이때 구두발 소리는 주애의 남편이 말한바 남자의 ‘허릿심’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명백히 성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다. 즉, 주애는 배영과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에게 성적 끌림을 느꼈으며, 그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서 경련을 일으켰던 것이다. 온종일 “그 구두발 소리의 주인공 하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냉정전을 계속”(1회, 58면)한 끝에 집에 돌아온 주애는 정좌한 자세로 독서 중인 남편에게 다가가 “어리광”(1회, 58면)을 부린다. 이는 외간 남자에게 끌림을 느꼈다는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주애는 남편에게 먼저 배영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뿐 아니라(“건국 문화사 출판부에 꼭 당신 걸음걸이 같은 작자가 하나 있구려. 구두발 소리가 어떻게 요란한지 모르겠단니까.”(1회, 58면)), 무관심하게 구는 남편을 계속 건드려 제게 달려들도록 만든다. 남편이 “맹렬한 기세”(1회, 60면)로 자신을 다루는 동안 “아무 반항없이 몸을 내맡기”(1회, 60면)는 주애의 모습은 마치 남편에게 속죄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주애는 배영에게로 마음이 향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가령, 배영과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친 날 주애는 그와 헤어지면서 “배영을 돌아다 보지 않으려고 하다가 끝내 못참”(3회, 56면)는 것으로 그려진다. 결국 주애는 남편에게 이를 들키고 만다.<sup>40)</sup>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상동 광산으로 떠나겠다고 선언한다. 그는 “나 없는데서 싫것 서방질하라구 떠나 주려는 거야”(8회, 106면)라는 노골적인 말로써 자신의 출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다. 주애는 탄광에까지 찾아가 “당신이 집에 있을적엔 판 생각을 했던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당신이 떠난 뒤론 그 마음이 달아나 버렸어요”(9회, 113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지만, 남편은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 그런 와중에 주애는 ‘이동편집실’을 구실로 삼아 대천으로 떠난 단체 휴가에 동참하게 되고, 그곳에서 주애와 배영의 관계는 완전히 결판나고 만다. 주애와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한 배영이 주애를 범하려다가 강력한 반항에 부딪힌 것이다. 주애는 배영의 행동을 “무례한 짓”, “썩은 개고기같이 더러운 짓”이라 표현하며 “전력을 다”해 적극적으로 “항거”한다(12회, 117면). 그를 물리치는 데에 성공한 주애는 그 즉시 서울로 올라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쓴다.

대천에서 돌아오니 당신이 다녀가셨더군요. 방에 아직 당신이 남기고 간 냄새가 살뜰히 풍기고 있습니다. 어서 돌아 오세요. 당신 없이는 허전해서 못살겠어요. 다 그만두고 돌아오세요. 집에 오시면 제가 공손이 벌여 섬기겠어요. 오직 당신을 봉양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겠어요. 그동안 마음의 동요를 누워칩니다. 너무 집에만 있다가 넓은 세상에 나가서 철 없이 날뛴 것 같습니다.

37) 이입하, 앞의 책, 95-98면 참조.

38) 나보령, 앞의 글, 327면. 더하여, 나보령은 직업여성의 용례와 관련하여 “당시 직업여성이라는 용어는 전쟁과 생활고로 인해 급증한 성매매 여성을 의미하기도 했다”면서 “이들은 ‘특수 직업여성’이라고 한정되기도 했지만, 직업여성이 그대로 성매매 여성을 가리키는 경우도 많았다”고 전하고 있다.(해당 글, 각주 19번.)

39) 소설은 이를 “아니꼽다던가, 불유쾌한 일이 생기면 왼쪽 눈가풀에서 시작되는 가벼운 경련이 왼쪽 다리에 이르는 버릇”(1회, 54면)이라고 표현한다.

40) 이때 남편이 주애가 배영의 앞에서 일으킨 경련을 보고 그를 향한 주애의 마음을 눈치채는 것은 상당히 흥미롭다.

제겐 인제 당신외엔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의 빈자리 하나 없이 당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2회, 119면)

이때 “오직 당신을 봉양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겠어요”라는 주애의 말은 여성들의 노동을 오직 “가족의 행복을 위한 것일 때만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여성이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등한시하고 바깥 일에만 매달리는 것은 가정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로 간주”<sup>41)</sup>했던 당대의 지배담론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않고, 이에 주애는 아예 회사를 관두고서 아들 성수를 데리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간다. 남편은 여전히 주애를 매몰차게 대하지만 주애는 인내를 가지고 “오직 성심성의껏 자기가 할 일을 해나가려는 생각”으로 “아내로서의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17회, 158면). 이는 명백히 전통적 여성상으로의 회귀이다. 하지만 그것은 소설 내에서 완수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까닭은 소설 후반부에 주애가 낳은 아이가 남편 이정기가 아닌 배영을 닮은 것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주애는 배영과 성적 결합을 이룬 적 없거니와, 앞서 살펴보았듯 배영이 그것을 시도했을 때 강력하게 저항한 바 있다. 그리하여 주애에겐 “틀림없이 아이는 이정기의 것이니까”(17회, 159면)하는 확신이 있었다. 그런데도 아이는 주애 자신이 보기에 배영과 비슷한 것으로 묘사된다. 말하자면 ‘유사 사생아’인 셈이다. 소설은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를 둘러싼 주애와 남편 사이의 갈등을 종내 해소하지 않은 채, 주애의 행방을 묘연하게 처리하면서 끝난다.

따지고 보면 사실 주애는 외도를 하지 않았다. 배영에게 성적 끌림을 느꼈던 것은 맞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거나 배영과의 관계를 진전시키고자 한 적은 없다. 오히려 배영에게 끌림을 느낄 때마다 경련으로써 거부 반응을 보였을 따름이다. 그런 주애를 “서방질하고 돌아다니던 년”(16회, 149면)이라고 매도하는 남편이야말로 “계집질”(17회, 156면)을 일삼는 인물이다. 하지만 정작 소설 내에서 징벌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것은 주애다. 이러한 서사적 모순은 1950년대 한국 사회의 성모랄이 지닌 이중성, 즉 “남녀 모두에게 순결을 지킬 것을 권했지만, 기실 정조는 여성의 모랄이었다”<sup>42)</sup>는 사실을 새삼 상기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너와 나와와 청춘」은 아프레 걸 담론이 어떻게 ‘무고한’ 여성을 낙인찍고 배제시키는지 보여주는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끝없는 낭만』과 「너와 나와와 청춘」은 각각 미군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 인물(차래)과 직업여성 인물(주애)이 아프레 걸로 규정당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결국 실패에 이르고 마는 서사를 그려낸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단순히 단죄의 서사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이는 ‘아프레 걸’이라는 개념의 모호성과 불확정성을 증거하는바 아프레 걸 담론의 허위성을 드러낸다. 그 의의를 밝힘에 있어서는 권명아의 풍기문란 관련 연구를 참조할 만하다. 권명아는 “풍기문란이란 그 자체로는 규정을 갖지 않는 무규정적인 개념”임을 지적하면서, 이 “무한 증식”하는 ‘문란함’과 ‘비국민적 자질’에 대한 규정을 바탕으로 ‘선량함’ 또는 ‘국민 됨’의 자질에 대한 규정이 성립된다는 점을 짚어낸 바 있다.<sup>43)</sup> 권명아에 따르면 이는 “주체 위치(subject position)의 배치”<sup>44)</sup>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풍기문란자로 규정된 주체들은 ‘자연 상태’, ‘전쟁 상태’, ‘비국민의 상태’ 등으로 배치되며, 이들의 삶은 “계토화”되기 때문이다.<sup>45)</sup> 아프레 걸 담론은 바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기실 아프레 걸이라는 개념은 지

41) 김은하, 앞의 글, 189면. 김은하는 이것이 「직장을 가지려는 여성에게」, 『주부생활』, 1959.04.을 참조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42) 김은하, 앞의 글, 197면.

43) 권명아, 『음란과 혁명』, 책세상, 2013, 39면.

44) 위의 책, 347면.

45) 위의 책, 같은 면.

시 대상이 불분명하다. 아프레 걸 담론은 그러한 '무규정적 규정'에 기반하여 통제의 대상을 무한히 확장해 가는 특성을 보인다. 그리하여 아프레 걸이라 규정된 주체들은 도덕적 비난과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되며, 나아가 비국민화된다. 『끝없는 낭만』과 『너와 나와와 청춘』은 바로 이러한 아프레 걸 담론의 '파시즘'<sup>46)</sup>적 작동 방식을 드러내 보이는 소설이라 할 수 있다. 두 소설을 단지 아프레 걸을 향한 단죄의 서사로 읽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 4. 전도된 '아프레 걸' 서사 - 「그와 그들의 연인」

「그와 그들의 연인」은 최정희 문학 연구사에서 오랫동안 누락되어 있었던 작품으로, 앞서 언급했다시피 2014년에야 이병순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이병순은 「그와 그들의 연인」을 “1950년대 초반 젊은이들의 사랑과 파국을 그려낸 소설”<sup>47)</sup>로 요약하는 한편, 등장인물을 ①“바른 것”을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물군 ②“난세에도 자신의 실속을 챙기는 금권주의자” ③“시류에 몸을 맡기고 부유하는 인물군”으로 나누고, 윤상매라는 여성 인물을 세 번째 유형에 배치시킨다.<sup>48)</sup> 이병순에 따르면 윤상매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부초 같은 사랑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비극을 가져오는지”<sup>49)</sup>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러나 구자연은 이와 같은 이병순의 분석에 대해 “윤상매라는 인물의 긍정적 면모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sup>50)</sup>했다고 평가하면서, 「그와 그들의 연인」을 직업여성의 '자기발견서사'<sup>51)</sup>로 읽을 것을 제안한다. 이때 주목되는 것은 6·25 전쟁 발발 당시 모두 앞다투어 피난길을 떠나는 와중에 윤상매가 서울행 기차를 타고 상경하는 장면이다. 구자연은 이 '역행'에서 뤼스 이리가레가 말한 '반사경(specular)'적 성격을 확인하며 최정희의 글쓰기를 “가부장제 사회의 젠더화된 플롯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기존의 플롯을 역전시키는 “반사경(specular)”으로 역사 쓰기의 기획”<sup>52)</sup>이라고 적극적으로 의미화한다. 본고 또한 이러한 논의에 힘입어 윤상매라는 인물이 지닌 역행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만 이를 아프레 걸 서사와의 연관 속에서 논함으로써 「그와 그들의 연인」을 전도된 아프레 걸 서사로 위치시키고자 한다.

「그와 그들의 연인」을 아프레 걸 서사와의 관련 속에서 살피고자 할 때 주목해야 할 인물은 단연 윤상매다. 실로 소설 내에서 윤상매는 어머니에 의해 “천동벌거숭이로 제 몸 간수 하나 못하고 남자에게 함부로 넘어가는 딸”<sup>53)</sup>로 소개되는바 '아프레 걸'이라는 표상을 대표하는 '성적 방종'의 이미지를 체현하는 인물이다. 그에 따라 이병순은 보다 직접적으로 윤상매를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며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아프레걸”<sup>54)</sup>이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윤상매의 이러한 아프레적인 속성이 작품 내에서 전후(戰後)의 시점보다는 오히려 전전(戰前)의 시점에 더 부각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특히 김해원과 관계를 경유하여 그려진다. 윤상매가 혼전에 김해원과 성관계를 맺자 윤상매의 모친 박봉혜 여사는 “졸업하기 전에 배가 불러”오거나 “치녀로 아일 날게 되면 큰 탈”(266면)이라며 딸에게 김해원한테 시집갈 것을 종용한다. 하지

46) 권명아는 풍속 통제의 기원을 일제시기 파시즘적 법제에서 찾는다. 일제시기 풍속 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의 책, 제2부 제1장과 제2장 참조.

47) 이병순(2014), 앞의 글, 95면.

48) 이병순(2014), 앞의 글, 96-97면.

49) 이병순(2014), 앞의 글, 98면.

50) 구자연, 「반사경으로 역사 쓰기 —최정희 장편소설 『그와 그들의 연인(1956)』과 『인간사(1964)』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88, 한국현대소설학회, 2022, 18면.

51) 이는 리타 펠스키의 '자기발견의 소설(The Novel of Self-Discovery)'에 기반한 개념이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글, 21-22면 참조.

52) 위의 글, 11면.

53) 최정희, 이병순 편, 앞의 책, 197면. 이하 해당 책을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면수만 표기하도록 한다.

54) 이병순(2014), 앞의 글, 97면.

만 윤상매는 “나는 얼라를 가이고 집에 와서 살 생각은 없어요”(266면)라는 말과 함께 어머니의 회유를 단호하게 물리칠 뿐 아니라,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오빠가 분노를 못 이겨내고 달려들어 “장작 패듯이 내려 조”(271면)지는 것에도 일방적으로 주눅들기보다는 “왜 때리느냐고 고향을 내어”(271면) 지르며 덤벼든다. 그랬던 윤상매가 전쟁 발발 직전에 김해원이 이채옥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 집에서의 ‘탈출’<sup>55)</sup>을 감행하며 편지에 그 까닭을 “제가 떠나가는 것은 오빠한테 얻어맞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김해원과 결혼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지금사 생겼기 때문입니다.”(281면)라고 쓰고 있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후 윤상매는 김해원을 데리고 함께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나 김해원과 결혼해야겠다는 윤상매의 다짐은 채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김해원이 ‘괴뢰군 의용군’으로 끌려간 탓이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9·28 서울 수복이 이루어지면서 윤상매는 김해원과의 관계와 더불어 인민군 치하에서 군수품 공장<sup>56)</sup> 감독으로 일했다는 사실이 문제시되어 군경 합동수사본부로 끌려간다. 그곳에서 윤상매는 김해원은 자신의 남편이 아니며, 김해원을 데리고 떠난 이유는 둘이 같이 살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이옥채한테 맬겨 두기가 싫어서”(352면)였다고 밝힌다. 윤상매의 취조를 담당했던 정낙영 중위는 윤상매를 처벌 없이 석방시킨 뒤 대구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리고는 1·4 후퇴를 계기로 집에 내려왔을 때 윤상매에게 넌지시 결혼을 제안한다. 윤상매는 정 중위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은 박봉혜 여사에게 허락을 받으러 간다. 윤상매는 어머니 앞에서 이옥채를 향한 죄책감을 드러내며 “이옥채가 날 어떻게 하더라도 난 그대로 받아 당해야죠”(412면)라는 말로 반성을 표하는 한편, 결혼할 사람이 생겼음을 고한다. 박봉혜 여사에게 있어 이는 ‘꿈’<sup>57)</sup>과도 같은 것으로, 박봉혜 여사는 드디어 꿈이 이루어진 데에 대해 “후들후들 떨기까지”(413면) 할 정도로 크게 감격한다. 이때 박봉혜 여사가 딸에게 “집을 나가서 어른이 돼 왔구나?”(412면)라고 말하는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 중위 또한 윤상매를 “전쟁 때문에 철을 채린 사람”(420면)이라고 표현하는데, 윤상매가 “전 정 중위 때문에 철이 들었어요”(420면)라고 단언하듯 그것은 물론 정 중위와의 만남 덕분에 가능할 수 있었다. 이는 윤상매의 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발화된다.

(A) “집에 있을 땐 너무 아무것도 몰랐어. 어머니 말씀맞다나 천동별거승이었어. 천동별거승이었기 때문에 함부루 날뛰었어. 난 정 중위가 아니더면 아직도 천동별거승이로 날뛰었는지 몰라. 그이가 날 붙잡아 이끌어 주었어.” (399면)

(B) “어무이 정 중위 말이에요. 참 존 사람이라요. 정 중위 만나지 않았드면 나 아직까지 어무이 말같이 천동별거승이었을 거예요. 정 중위는 육신만 살려 준 게 아니고 정신의 눈까지 뜨게 해주었어요.” (413면)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전선으로 가게 된 정 중위가 출전한 지 두 달 만에 전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상매는 정 중위의 유물을 집에 안치하던 날 밤 몸의 이상을 느끼고, 정 중위가 아닌 장현도의 아이를 임신한 것임을 직감한다. 김해원이 의용군으로 끌려간 뒤, 계속되는 폭격을 피해 지하실과 방공호에 숨어 지내는 동안 “목격이 무섭고 김

55) 서술자는 “상매가 집에서 탈출(脫出)한 것은 이튿날 아침이었다”(280면)라고 전하며, 59회부터 65회에 이르는 부분의 소제목은 <탈출>이다.

56) 이는 윤상매와 김해원이 서울행 기차에서 만난 사업가 장현도의 공장이다. 두 사람은 장현도의 도움을 받아 서울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57) 윤상매가 어머니를 찾아와 결혼 소식을 전하고 정낙영과의 결혼식을 올리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128회부터 138회에 이르는 부분의 소제목은 <꿈이 아니었다>이다.

해원이마저 인민군 의용군으로 나가고 나니 외롭기도 해서 저도 모르게 일을 저지르게 되었”(445면)던 것이 임신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윤상매는 시어머니에게 진실을 밝힌 뒤 고향으로 내려간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군대에 징집된 오빠의 빈자리를 대신하겠다고 선언한 뒤(“오빠가 하던 일을 제가 다 맡아 하겠어요”(451면) 새로운 삶을 꾸려나간다. 「그와 그들의 연인」의 결말부는 운전면허증 취득 후 택시 운전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윤상매의 모습을 조명하며 마무리된다. 소설 내에서도 “젊고 아름다운 인테리 여성이 자동차 운전을 한다는 일이 희안했던지 신문에서 잡지에서 그를 버려두지 않았다”(453면)고 서술되고 있듯이, 당시 여성이 자동차 운수 사업에 종사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관련하여 구자연은 최정희가 미국의 직업여성들을 소개한 『여원』 기사(58)를 통해 기증기를 운전하는 여성의 사례를 접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최정희가 실제로 해당 기사를 읽었을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기존의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를 초과하는 직업을 윤상매의 직업으로 설정한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으로 윤상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와 그들의 연인」의 서사를 살펴보았다. 작중에서 ‘천동별거숭이’, ‘말괄량이’ 등으로 비유되는 윤상매는 명백히 아프레 걸 표상과 친연성을 지닌 인물이다. 그러나 윤상매의 아프레적인 성격은 전후(戰後)의 시점보다는 전전(戰前)의 시점에 더 강조될 뿐 아니라, 기존의 아프레 걸 담론이 전쟁을 무질서의 원흉으로 지목하며 전후 사회에서의 여성들의 퇴폐, 향락, 타락 등을 문제 삼았던 것과 달리 「그와 그들의 연인」에서 전쟁은 오히려 윤상매가 ‘천동별거숭이’의 상태를 벗어나는 계기로 작용한다. 다만 그러한 ‘성숙’은 전적으로 정중위라는 남성 인물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같은 구도는 「그와 그들의 연인」이 아프레 걸 담론의 작동을 소설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전쟁을 전후한 윤상매의 변모는 아프레 걸 담론에 규율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실 윤상매가 김해원과 성관계를 맺고도 그와의 결혼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천동별거숭이 같은 소리”(267면)가 아니라, 혼전순결 이데올로기 및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 맞선 적극적인 항변이자 저항이었다. 그러나 윤상매는 전쟁을 기점으로 차츰 결혼에 대한 태도를 바뀌어나갈뿐더러, 작품 후반부에 이르면 정 중위와 결혼하게 된다. 소설은 이러한 윤상매의 변화를 “결혼해서 여편네가 되는 일 그리고 한정된 집 속에서 답답하게 살아가는 일들을 지겹게 여기던 한때의 사상(?)은 어디로 후딱 날라 갔는지 모를 일이었다”(426면)라는 문장으로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만약 이 지점에서 소설이 끝났다면 「그와 그들의 연인」은 단지 아프레 걸 담론을 충실히 따른 작품에 불과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 중위가 급작스럽게 전사함에 따라 「그와 그들의 연인」의 서사는 새로운 차원에 진입하게 된다. 그 의미를 밝히기에 앞서 이입하의 ‘군경미망인’ 관련 논의를 살펴봄 직하다. ‘군경미망인’이란 남편이 군인, 경찰관, 청년단체원, 군속 등의 신분으로 참전하여 전사했거나 행방불명된 기혼여성을 일컫는 말로,<sup>59)</sup> 이입하는 구술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전쟁 경험 및 생계 활동을 분석하면서 “그들의 기억에서 전쟁과 관련된 기억은 전쟁 그 자체보다는 전후의 기억, 곧 미망인이 되어 살아온 현실에 대한 기억이 더욱 강렬”했으며, 그런 의미에서 “미망인들에게 남편과의 헤어짐은 오히려 전쟁 그 자체”였다고 쓴 바 있다.<sup>60)</sup> 즉, ‘미망인’들에게 있어 전쟁은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이 아니라 남편을 상실한 순간에서부터 진정으로 감각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와 그들의 연인」의 윤상매 역시 정 중위의 죽음 이후 비로소 전쟁을 체험하게 되었다

58) 「결혼→퇴직은 옛이야기—미국여성들의 직장복귀운동—」, 『여원』, 1956.10. 해당 기사에서는 기증기 운전이 ‘여자의 일’로 소개되고 있다.(구자연, 앞의 글, 21면에서 재인용.)

59) 이입하, 「전쟁미망인」의 전쟁 경험과 생계활동 - ‘군경(軍警)미망인’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1, 비판사회학회, 2006, 1-2면.

60) 위의 글, 8면.

고 할 수 있다. 윤상매에게 있어 그것은 시가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사건으로 시작된다. 이입하에 따르면 전쟁미망인의 분가는 결코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계 혈통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한 여성은 시가와 관계 중심의 가족 관계를 재편할 수밖에 없었거니와, 며느리의 재혼을 막고자 하는 시가의 입장에서 분가는 며느리를 향한 일상적인 규제와 감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sup>61)</sup> 그리하여 분가하고자 하는 미망인들은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기 마련이었는데, 「그와 그들의 연인」의 윤상매의 경우에는 아들 장수가 정 중위의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렵지 않게 시가에서 독립할 수 있었음이 흥미롭다. 즉, 윤상매가 혼전에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결함’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독립을 가능케 한 요인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시가로부터 성공적으로 분리될 수 있었던 윤상매는 이제 여성 가장이 되어 새로운 가족 관계를 이루게 된다. 이는 물론 윤상매의 경제 활동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고, 윤상매는 자동차 운수 사업을 통해 생계를 꾸려나간다. 이입하의 말마따나 이와 같은 전쟁미망인의 노동은 “근대의 기획, 곧 공사 영역의 분리와 사적 영역에서의 현모양처라는 틀을 깨뜨렸다”<sup>62)</sup>고 평가될 만하다.

요컨대, 「그와 그들의 연인」은 아프레 걸 서사의 패러디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프레 걸 서사는 이른바 ‘아프레 걸’이라고 명명되는 현대적 여성상과 전통적 여성상을 대비시키고, 전자에 부정성을 부여함으로써 전통적 여성상의 승리로 귀결되는 경향을 지닌다. 정 중위의 죽음 이전까지만 해도 「그와 그들의 연인」은 언뜻 이러한 구도를 수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사코 결혼을 거부했던 윤상매가 정 중위와의 만남을 계기로 그의 ‘가르침’ 덕분에 ‘회심’하고 그와 결혼하게 되는 것은 그것의 반영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그와 그들의 연인」은 정 중위를 전사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서사 내에서 그의 존재를 지울 뿐 아니라, 윤상매에게 정 중위의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를 부여하여 윤상매와 정 중위 사이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린다. 그에 따라 결말에 이르면 윤상매는 어떠한 남성 인물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오롯이 독립된 여성 주체로 거듭나게 된다.

#### 4. 나오며

지배담론을 재생산하는 듯하면서도 미묘한 균열을 일으키는 최정희의 글쓰기는 이미 여러 논자들에게 의해 주목된 바 있다.<sup>63)</sup> 이처럼 최정희가 지배담론에 관한 비판적 시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김복순은 ‘젠더 중심성’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설명한 바 있다.<sup>64)</sup> 하지만 총체적인 작가론을 시도하고 있는 김복순의 연구에서조차 『끝없는 낭만』을 제외한 1950년대 중후반 장편소설들은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sup>65)</sup> 최정희에게 있어 1950년대는 “단편의 세계에서 장편의 세계로 나아가는 계기로서의 의미”<sup>66)</sup>를 지닌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1950년대 최정희는

61) 이입하,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책과함께, 2010, 215-225면 참조.

62) 위의 책, 172면.

63) 대표적으로 심진경, 「최정희 문학의 여성성-여성작가로 산다는 것」, 『한국근대문학연구』 13, 한국근대문학회, 2006; 나보령, 「부역작가도, 중군작가도 아닌 - 1950년대 최정희의 문학 활동에 대한 재조명」, 『현대소설연구』 83,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 유승환, 앞의 글 등이 있다.

64) 김복순, 『나는 여자다: 방법으로서의 젠더』, 소명출판, 2012 참조.

65) 김복순은 80여 편에 달하는 최정희의 소설 가운데 주인공이 여성 인물이 아닌 경우는 「귀뚜라미」밖에 없다고 쓰고 있는데, 이는 1950년대 장편소설들을 누락한 데에서 기인한 오류라고 생각된다. 「페스마스 크의 비극」(『평화신문』, 1956.01.01.-1956.03.29)과 「인생찬가」(『여성계』, 1957.04.-1958.11.)은 각기 허형재와 한형재라는 남성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소설들이다. 비록 본문에서 언급하진 못했지만, 이들 소설은 아프레 걸 담론이 남성 주체의 위기의식의 발로에 불과하다는 점을 드러내 보이는 작품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

66) 신영덕, 「비극적 현실인식의 의의-최정희론」, 송하춘, 이남호편, 『1950년대의 소설가들』, 니님, 1994, 150면. (이병순(2014), 앞의 글, 85면에서 재인용.)

장편을 잇따라 연재하며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쳐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최정희의 1950년대 작품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감이 있다. 본고에서는 전후(戰後)라는 시대적 맥락에 입각하여 1950년대 중후반 최정희의 장편소설들을 '아프레 걸 서사'로 통칭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 소설이 당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아프레 걸 담론을 표면적으로는 수용하는 듯하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재구성해나갔는지를 논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끝없는 낭만』과 「너와 나와와 청춘」이 아프레 걸 되지 않기에 실패하는 여성 인물을 그려냄으로써 아프레 걸 담론의 한계를 폭로하는 소설들이라면, 「그와 그들의 연인」은 전도된 아프레 걸 서사를 통해 아프레 걸 담론을 재전유하는 작품임을 알 수 있었다. 본고의 이와 같은 논의를 발판 삼아 1950년대 중후반 최정희의 장편소설들에 대한 보다 활발한 독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